

November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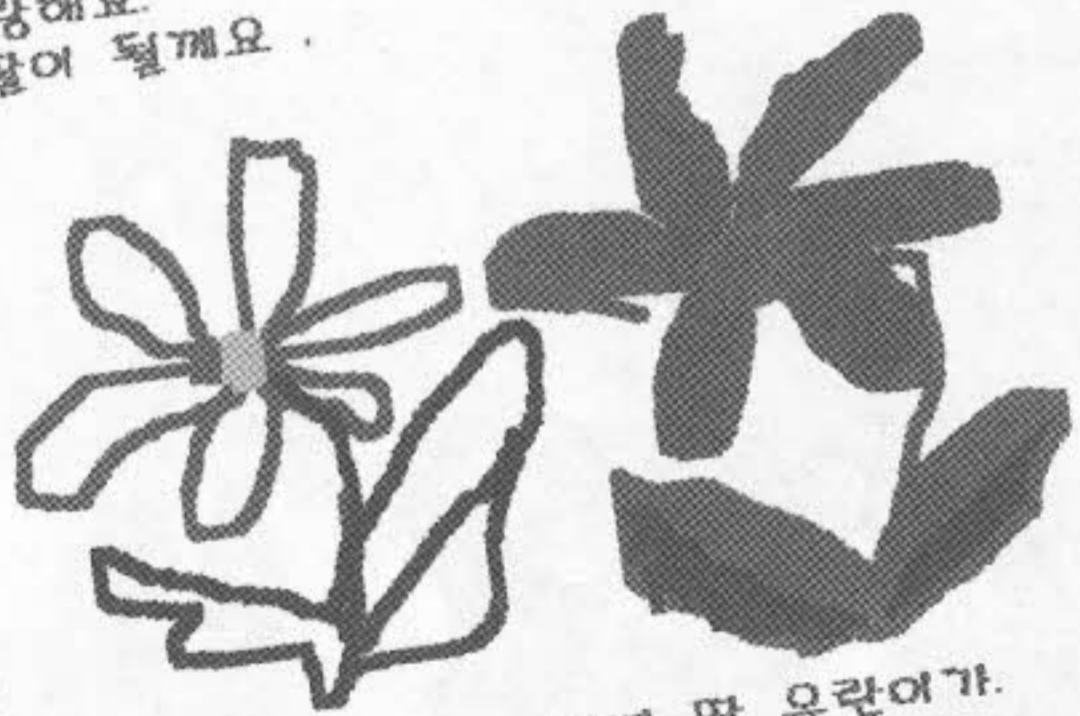
아
함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아빠, 사랑해요.
건강한 딸이 될게요.



아빠 딸 유란이가.

세
계
의
모
든
어린이
를
사랑
하
요



제5회 푸른우리마을 가족캠프

하늘도 우리도 드높은 오늘!!

항암제와 주사바늘은 잊어 버리자. 그리고 접혀 있던 날개를 펴고 맘껏 날아 오르자!

10월 5일. 다섯번째 푸른우리마을 가족캠프가 백혈병어린이 10가족과 의료진을 비롯한 스텝이 참가한 가운데 전용휴양시설인 '샘솟는 집'에서 1박 2일동안 개최되었다. 병원을 출발하는 가족들의 설레임을 아는 낭 높은 가을 하늘아래 햇살을 가득 안은 샘솟는 집이 가족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개영식으로 시작된 캠프는 가족소개에 이어 야외 바베큐 파티, 환영의 밤, 캠프파이어와 촛불의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환영의 밤에서는 가족들의 장기자랑이 펼쳐져 그 동안의 어둡던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을 수 있었다. 특히 캠프파이어와 촛불의식에서는 안효섭 고문(서울대병원 소아과

교수)과 백혈병 치료를 마치고 이젠 숙녀가 된 양금연씨가 함께 캠프파이어와 '완치'라고 쓰여진 화이어 레터에 불을 당겨 참석한 모든 이의 가슴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뒤이어 승욱이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글이 낭독되었고, 최근 치료를 끝낸 석희로부터 시작된 촛불의식이 고요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모든 하루 일정이 끝나고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도 마당 한 켠에서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응어리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어 아픔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었다.

둘째 날에는 부모교육, 소집단 모임, 놀이 시간, 캠프 백일장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모교육은 제2회 급성림프구성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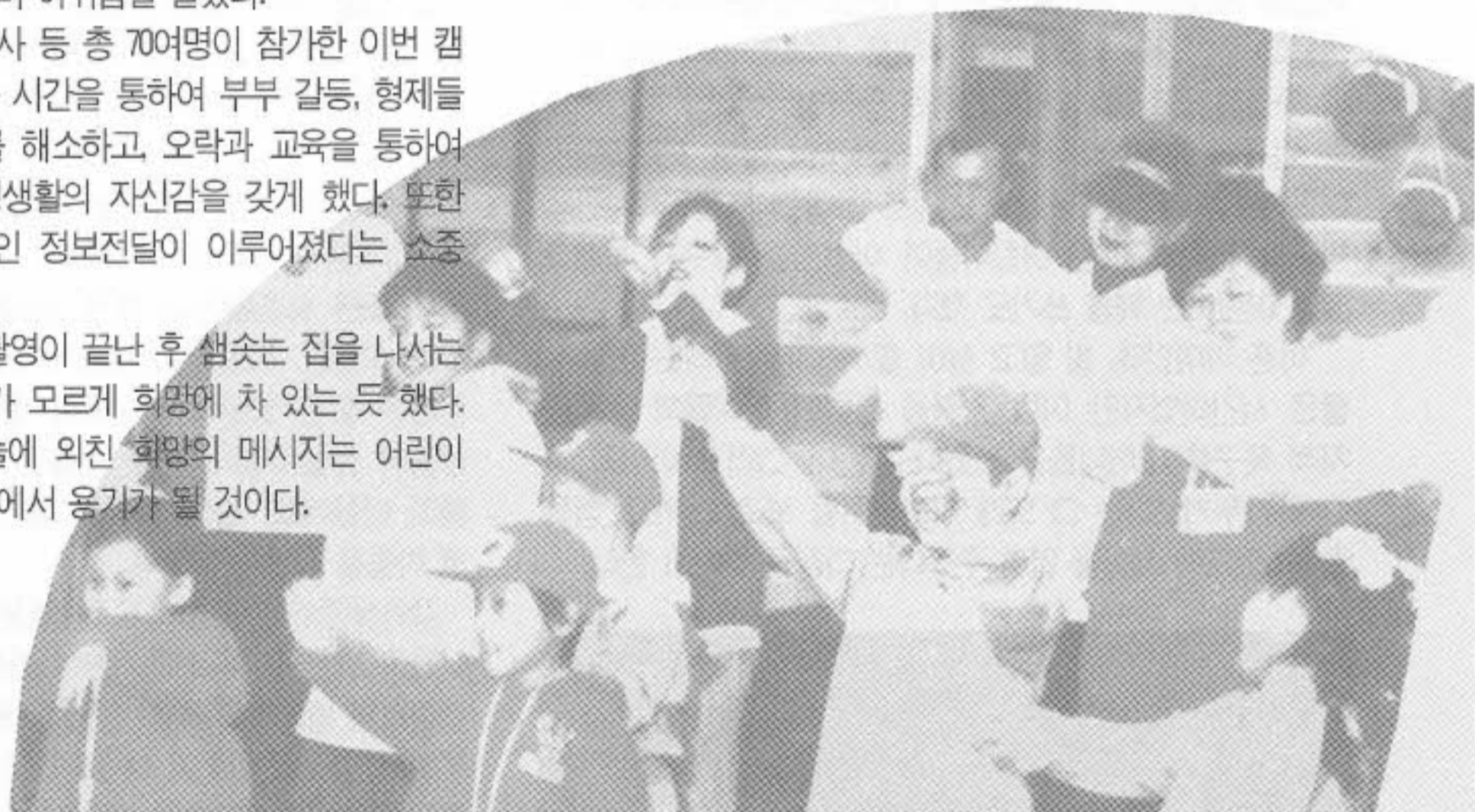




혈병어린이 부모교육 워크샵으로 꾸며져 백혈병치료분야, 약물분야, 영양분야 등 치료과정 중에 필요한 정보를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설명 하나하나를 놓칠까 싶어 열심히 필기를 하는 부모들의 손길이 분주하기만 했다. 폐영식 선언으로 1박 2일의 가족캠프 일정을 마무리하고,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완치의 희망을 다지며 아쉬움을 달랬다.

환아가족, 스텝, 외부인사 등 총 70여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하여 부부 갈등, 형제들의 소외 등의 가족문제를 해소하고 오락과 교육을 통하여 백혈병어린이들에게 투병생활의 자신감을 갖게 했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한 효과적인 정보전달이 이루어졌다는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

캠프참석 전원의 기념촬영이 끝난 후 샘솟는 집을 나서는 가족들의 발걸음이 어딘가 모르게 희망에 차 있는 듯 했다. 우리가 이곳의 가을 하늘에 외친 희망의 메시지는 어린이들의 어려운 치료과정 속에서 용기가 될 것이다.





자원봉사 축제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

— 삼성박물관 견학/제일기획

9월 10일 제일기획의 초청으로 백혈병어린이들이 삼성어린이박물관 견학 길에 올랐다.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경희의료원에서 치료중인 8가족, 18명이 참석해 가을소풍을 연상케 했다. 어린이 한 명마다 봉사자 한 명이 박물관 안내 및 보호자 역할을 해 안전한 관람이 이루어졌다. 자연탐구, 인체탐험에서는 신기한 과학의 세계와 인체 각 기관의 역할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었고, 어린이 방송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무대를 꾸미고, 스타처럼 화면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멀티미디어탐구 시간에서는 컴퓨터 통신, 낙서판, 변신, 물체조립 등의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을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초대했다. 짧은 2시간의 박물관 견학을 마친 어린이들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고 몇몇 어린이는 떼를 쓰기도 했다.

‘아픈 아이인데, 뭘 알고 싶어 할까?’ 의심했다는 어머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견학을 통하여 아이들의 무한한 지적 욕구를 어머니들은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를 병원에 가두기보다는 그 또래 아이들처럼 보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세상을 열어 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한다.



엄마 빨리 나올게요!

— 예쁜그림엽서전/삼성데이터시스템

9월 14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혈액종양센터 강의실에서는 삼성데이터시스템 수원S실 주최로 예쁜그림엽서전이 있었다. 12명의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와 어린이, 어머니가 1조가 되어 누가 더 예쁜 엽서를 만드나를 시합했다. 행사를 위해 삼성데이터시스템에서는 PC 10대와 프린터, 시상 상품, 다과 등을 준비했다. 시합이 시작되자 어린이들은 그림그리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색을 선택하여 엽서를 만들기 시작했고, 완성된 엽서를 심사석에 제출하였다. 컴퓨터 작동에 익숙하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도우미 역할을 하여 진행이 매끄러웠다. 결과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시선이 심사석으로 쏠리는 등 초조한 모습들이다. 예쁜그림엽서전 으뜸상의 주인공으로는 이병진, 정호철 어린이가 선정되었고, 참가한 어린이 전원은 물론 병실에서 나오지 못한 어린이들에게도 많은 상품이 전달되었다. 이날 제출된 엽서에 적힌 ‘엄마 아빠 빨리 나올게요’ 등의 짝막한 글귀는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강의실에서 열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 편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또 하나의 기쁨이 마련되고 있었다. 교육실 환경정리와 병실의 유리창, 형광등, 환기팬 등 병실 청소가 이루어져, 행사를 마치고 어린이들이 병실로 돌아갔을 때에는 깨끗한 병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설운영 현황보고 ①

제일생명의 집

— 지방환아를 위한 숙박시설

6월부터 운영에 들어 간 제일생명의 집은 3개월의 시험운영을 마치고, 지방환아들을 위한 숙박시설로써 자리잡고 있다. 후원회에서는 부모상담,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이용 가족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용·비치품 점검·안전 및 위생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 만들어 가고 있다.

♥ 이용 현황

월	6	7	8	9
이용가족수	7가족 / 46일	10가족 / 58일	14가족 / 66일	12가족 / 70일
이용률	38.3%	46.8%	53.2%	58.3%
평일이용률	53.3%	52.3%	58.3%	65.8%

제일생명의 집 이용은 방사선 치료 및 항암제 치료의 환아로 병원과 집의 거리,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가족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 어린이들 치료 특성상 주말에는 퇴실이 많으므로 평일이용률과 차이가 있으며, 가족들의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자원봉사

단체명	봉사일정	내용
흥사단 청소년 자원봉사단	매월 격주 2회	제일생명의 집 청결활동
사랑터(사장 임춘자)	매월 2회	양념 후원
수정궁(회장 이명우)	매월 2회	김치 후원



♥ 관리사항

- 비치품점검 : 매주 1회(쌀, 식수, 기본 양념, 생필품 등)
- 위생·안전점검 : 격주 1회(가스점검, 화기·소화전 점검, 냉장고 및 주방위생 등)
- 청결활동 : 매주 1회 실시
- 상담·설문지 : 입실 부모 대상 실시

‘아이 열리는 덴 밤낮도 없어요 집이나 가까우면 다행이지만, 집이 지방인 저희는 밤이면 아이가 열이 날까봐 항상 조바심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제일생명의 집에 있으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안심이에요’

□ 제주도에 사는 준혁이 어머니

‘지금 재열이(83년생/뇌종양)는 항암치료와 척추 물리치료를 함께 하고 있는데, 아직 허리를 쓰지 못해 업고 다녀야만 해요 클대로 다 큰 녀석을 업고 다니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병원 가까이에 환아의 집 있는 덕분에 재열이 통원 물리치료가 쉬워졌습니다’

□ 전북 정읍에 사는 재열이 어머니





더불어 사는 삶

가족캠프에서

올해 3월 6일

승욱이를 유치원에 처음 입학시키던 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자기 가방과 출석카드를 챙기고 기다리고 있는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뛰어 나왔지만 승욱인 나올 생각을 안했습니다. 남들 다 찾는 가방을 못 찾아 교실에 남아 울먹거리고 있는 녀석을 보면서도 유치원에 들어 갈 만큼 커 준 것이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그 대견함이 그 다음날 유치원에 가는 것이 아닌 병원 입원으로 바뀐 뒤, 오늘 10월 5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로 조금씩 다른 시연으로 처음 병원에 발을 디딘지 1년이 채 안된 우리들은 이 시간들이 살아 오면서 가장 길었고 아팠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구내!' 하고 어설프게 알았는데 내 몸의 고통을 통해 나온 아이가 치료중에 받는 고통이야 말로 마음이 찢어져 버려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아픔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외래치료를 받는다고 혈령한 가운데 링겔도 벗어 버렸지만 의심만 많아진 마음에 수치라도 조금 떨어지면 '혹시 다시 병실로 돌아가 힘든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확신도 불신도 하기엔 우리가 지내 온 시간이 마음만큼 길지만도 않은가 봅니다.

이름만 되새겨도 아픔이 저며 오는 세연이, 연용이, 단비, 성수, 희광이, 혜원에게 그들이 그려 보기만 했을지도 모르는 '연천 샘솟는 집' 이곳의 불꽃을 태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사바늘과 마스크와 항생제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다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커서, 외롭고 아픈 사람을 돕는 것이 이 불꽃처럼 따뜻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연기와 함께 소원 닿는 곳에 날려 보냅니다.

1996년 10월 5일 '샘솟는 집'에서
승욱이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옥수수는?

찬혁이네 가족이 주말마다 도시에서 벗어나 향긋한 전원생활을 시작한 것은 올 7월. 찬혁이와 찬욱이 형제는 목조건물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를 따라 우연히 '샘솟는 집'을 방문해 같은 또래 친구들이 백혈병으로 아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새로 마련된 작은 터의 기쁨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올해 처음 농사에 뛰어든 찬혁이네 가족은 여름내 뜨거운 햇살과 무성한 잡초, 폭풍우와의 싸움에서도 가장 맛있는 옥수수를 수확했다. 동생 찬욱이는 색종이를 오려 붙인 모금함을, 찬혁이는 찢 옥수수 자루를 메고 아파트촌을 돌며 아주머니들에게 옥수수를 팔아 7만 1천원을 모아 후원회에 전달하였다.

“더 많이 팔았으면 좋았을텐데.... 내년에는 더 맛있는 옥수수를 수확할꺼예요.”

“아이들이 이번 일을 하면서 어른스러워졌어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커 주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함께 캠프파이어에 참석한 찬혁이네 가족의 얼굴에는 사랑나눔의 기쁨이 가득했다.



보고싶은 친구들에게!



친구들아 안녕?

나는 인천 대정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박찬혁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내 동생은 같은 학교 3학년에 다니는 찬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개구쟁이지만 곰처럼 귀여워.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경기도 연천에 있는 임진강가로 농사를 지으러 다닌답니다. 아직은 우리 집이 없어 비닐 하우스에서 밥을 해먹고 잠도 잔답니다. 주말마다 시골에 가는 까닭은 오염되고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함께 땀흘려 일하는 보람을 찾기 위해서야.

지난 겨울 어느날 재인폭포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샘솟는 집'을 보았고 또 백혈병 어린이후원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 그리고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하는 중에 아빠가 매주 시골에 다니면서 그냥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픈 친구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셨어. 그래서 금년에는 옥수수 농사를 짓기로 한거야. 아빠 엄마는 밭을 갈고, 나와 동생은 작은 구멍에 세 개씩 옥수수 씨를 뿌렸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다음 주부터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어. 그러나 한 달쯤부터 우리를 괴롭힌 것은 잡초와 폭풍우였어. 잡초는 뽑아도 일주일만 지나면 쑥쑥 자라는 거야. 잘 자라던 옥수수가 어느 날 풍풍우때문에 뿌리가 뽑힌 채로 다 쓰러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한 포기씩 일으켜 세우고, 흙을 덮어 주었더니, 다행히도 다시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수염 달린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 비바람이 몹시 치던 날 비를 흠뻑 맞으면서 일을 할 때는 무척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 처음 지은 농사였지만 다행히 열매를 잘 맺어 많은 수확을 했고, 한 개에 오백원씩 받고 동네를 다니면서 팔았답니다. 내 동생은 모금함을 들고 나는 옥수수 자루를 메고 다니면서 팔았어. 이렇게 모은 돈을 지난번 캠프에서 전달하고 나니 좀 더 많이 팔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친구들아! 치료받기가 무척이나 힘들다면? 그러나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곳곳이 이겨 내야해. 내년에는 우리가족이 농사짓는 시골이 있는 임진강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캠프를 열었으면 해. 거기에는 아직 물이 오염되지 않아 다슬기도 많고, 껍지, 메기 같은 물고기도 잡혀. 그리고 강가에 넓은 모래사장이 있어 놀기도 좋답니다. 또 금년 수해에 떠내려 온 나무가 많아 캠프화이어 하기도 그만이란다. 내년에는 옥수수뿐만 아니라 감자, 고구마, 토마토도 심을 계획이야.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만나자. 안녕!

1996. 10. 14. 찬혁이가.



백혈병을 이긴 아이들

강형이의 세가지 소원

KCLF 강형이에게 소개 좀 부탁할까요?

강 형 전 이강형이고요. 나이는 16살. 지금 월계동에 있는 노천중학교 2학년이에요. 아팠기 때문에 후배들과 공부하고 있어요. 성격은... 별로 말이 없고 그래서 친구도 별로 없어요.

KCLF 여자친구는 있어요?

강 형 남녀공학이지만 남자, 여자반이 따로 있어요. 아직 여자친구는 없어요.

KCLF 강형이는 백혈병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지요?

강 형 전 제가 백혈병이라는 거 초등학교 3학년쯤 알았어요. 아픈 것은 유치원때부터가 같은데... 그냥 주사맞고 큰 주사로 등어를 쏘시는 것이 너무 싫고 아팠어요. 백혈병이 뭔지를 몰라 그 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는 몰랐어요.

KCLF 치료중에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어요?

강 형 전 그 힘든 시기에 엄마와 아빠가 안계셨어요. 아빠는 술과 함께 사시는 분이셨고 직업도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엄마와 이혼을 한 후에 가끔 집에 왔어요. 그때마다 엄마의 잔소리에 다시 나가 버리셨어요. 가난한 저희 집은 엄마가 시장에서 도라지나 파같은 걸 다듬어 주는 일을 하고 벌어 온 돈으로 살아갔는데 병원비 내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는 항상 한숨을 쉬셨고, 때로는 저와 동생을 야단 치기도 했었어요. 힘이 드셨나 봐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때부터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백혈병 치료를 거의 마칠 즈음에 돌아가셨어요. 전 엄마가 그렇게까지 아파했는 지는 기억이 없지만 할머니 말씀으로는 뇌막염이라는 병으로 많은 고생

을 했다고 해요. 엄마와 아빠를 잃고 나서 가장 힘들었어요. 집도 가난하고 동생 강이와 함께 외할머니와 살아야 했어요.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슬펐어요.

KCLF 백혈병치료를 마쳤을 때 어땠어요?

강 형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좋았어요. 간호사님 말씀으로는 그래도 전 치료가 수월했네요.

KCLF 현재 외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는데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어요?

강 형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세요. 할머니는 칠십이 훨씬 넘으셨고, 할아버지는 팔십이 거의 다 되셨어요. 무릎,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활동을 잘 못하세요. 할머니는 입맛이 변했는지 반찬도 잘 못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나라에서 준 아파트에 사는데 집이 아주 작고 오래되서 지저분해요. 벌레도 많고 벽에 금도 많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을 못하셔서 수입이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생활비를 타다가 쓰는데 항상 부족해요. 제 학비는 면제가 되고 점심도 학교에서 주는데, 친구들에게 부끄러워 거의 밥을 먹지 않아요.

선생님과 친구들은 제가 백혈병에 걸렸었다는 걸 몰라요. 저도 알리고 싶지 않고요. 몸이 약한 편이지만 그래도 제가 아팠다는 걸 모르게 할꺼예요. 절 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게 싫거든요.

KCLF '알리딘'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거인 '지니' 알죠. 지니가 만약 강형이 앞에 나타나 세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어떤 소원을 말하겠어요?

강 형 우선 바퀴벌레 없는 아파트에서 아빠, 엄마, 강이랑



이 강 형

- 1981년 5월 3일생
- 1988년 1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발병 (7살)
- 1991년 4월 치료종결 (11살)
- 현재 월계동 노천중학교 2학년 재학중

함께 싸우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게 안된다면 아버라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새 사람이 된 아버와요. 술도 안 마시고, 소리도 지르지 않는 그런 새 사람이요. 그리고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또 기어가 있는 자전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덕이나 산에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고 싶거든요. 전 다리에 힘이 별로 없어서 계단 오를 때에도 힘이 들어요. 근데, '지니'는 없겠죠?

KCLF 강형이의 앞으로의 계획은?

강 형 공부에는 소질도 취미도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실업계로 갈꺼구요. 기술같은 걸 배워서 일을 해서 얼른 부자가 되야죠. 강이에게 돈도 많이 주고 싶고, 공부도 가르쳐야지요. 저보단 똑똑한거 같아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제가 보살펴야 하니까.

KCLF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면 많은 동생들이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꺼예요. 그 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강 형 조금만 참고 견디면 이길 수 있다구요. 저도 힘들었지만, 참다 보니까 이렇게 다 나았다고 말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항암주사 맞을 때 아프면 재미있는 만화생각을 하거나 친구들 생각을 하면서 참으라고요. 저도 그때 그랬었거든요.

강형이의 과거 기억은 커다란 바늘과 높다란 행거에 걸린 링겔병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엄마의 손길에 대한 아련한 기억뿐이다.

강형이는 백혈병을 이기고 자랑스럽게 이자리에 섰지만

소년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이

아직은 어린 어깨에는 힘겹기만 하다.

강형이의 어깨에 놓인 그 무거움은

아찌면 관심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일지도 모른다.





훈훈한 사랑

작은이야기

♥ 범영아 화이팅!! - 진솔회 일동

진솔회(진도종합건설 여직원회/회장 임수진)가 정범영 학생(77년생/급성림프구성 백혈병/전곡고등학교 3학년/경희의료원 치료)을 알게 된 것은 작년 5월 매달 통장으로 사랑을 전하는 '새생명통장 나누어주기 운동'에 참여하면서 부터입니다. 그러나 입금할때마다 작은 금액이라 오히려 미안스럽게 생각했다는 진솔회에서는 지난 6월말에 열흘동안 진솔회 주최로 회사 전체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100만원을 모금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진솔회 언니들의 사랑이 새생명통장으로 전해져 수해로 어려운 연천에 살고 있는 범영이를 기쁘게 했습니다. 임수진 회장은 범영이가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보람이 깊어 진다고 말합니다. 요즘 범영이는 백혈병 치료중에서도 대학입시 준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건강한 모습이길...

들뜬 귀향길, 한 자리 모인 친척들, 정겨운 추석 모습을 멀리 한 채 쓸쓸하게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백혈병어린이들은 매년 있기 마련입니다. 뽀빠이 휘밀리(대표 이학로)에서는 추석을 맞이 해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금을 보내 오셨습니다. 후원회에서는 보내온 후원금으로 떡과 선물을 마련하여 추석 전날 병실을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내년 추석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길 바라는 뽀빠이 휘밀리 주부사원들의 마음이 병실 가득했습니다.

♥ 아버지의 마음

추석이 가까워 오면서 혜원의 상태는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혈을 받아야 하는 혜원을 위해 헌혈증서를 들고 병원을 찾았을 때에도 여전했습니다. 추석을 지내고 후원회에는 혜원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깝게 했습니다. 지식을 잃은 슬픔에도 후원회를 찾은 혜원이 아버지는 후원회에서 헌혈증서를 도와주어 환급받게 된 수혈비용 100만원을 다른 아이들을 위해 써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혜원을 그렇게 좋아하던 세연이 역시 혜원보다 일찍 하늘나라로 떠난 어린이입니다. 그러나 매달 후원회 통장에는 세연이 이름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세연이의 안타까움을 달래고, 치료중인 아이들의 완치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세연이의 이름으로 남고 있는 까닭입니다.

♥ 노래에 실은 사랑의 울림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경인DJ클럽(회장 김성준)은 DJ활동을 하면서 낮시간에 가두모금을 해 인천지역에서 치료중인 최재성(85년생/백혈병/서울대병원), 정호철(92년생/백혈병/서울대병원), 이형수(백혈병/중앙병원)어린이를 돕고 있습니다. 고액의 수술비를 돕는 것도 좋지만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어린이들에게 경제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주고 싶다는 회장 김성준씨는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전개해 더 많은 어린이들을 돕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노래한다는 생각에 30분씩 늦추다 보면 정해진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야 마지막 곡을 부른다는 이들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이로써 현재 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생명통장 나누어주기 운동'은 80명의 어린이들(매월 800여만원 전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자비의 천수천안(千手千眼)

10월 8일 불교방송 '자비의 천수천안'에서는 말초혈액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윤수(82년생/백혈병)와 어려움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부모님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프로에서는 후원금을 모금해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윤수의 이야기가 방영된 후 사랑의 정성이 모여져 4백 13만 7천원이 윤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희망을 찾아 떠나는 행진

- 두번째 자전거 국토행진(조선일보 선주성 기자)

김광일씨(부천/미용사)에 이어 조선일보 선주성기자가 두번째 자전거 국토행진을 마쳤습니다. 백혈병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10월 6일 전남 해남 땅끝마을을 출발. 6일간의 국토행진을 마친 선기자는 11일 2시에 최종 목적지인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선기자는 병실의 어린이들과 승리의 감격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국토행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선기자의 국토행진을 위해 코렉스는 자전거 한 대를 기증했으며, 삼성데이터시스템 수원S실 직원 1백 30명은 점심값을 아낀 돈 72만원을 거둬 선기자를 통해 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 우리 그림 보러 오세요

- 임상의학연구소 건설현장 백혈병어린이 그림전시회



10월 22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건축현장에서는 백혈병어린이 그림작품이 전시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손수 그린 어린이들의 그림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서울대병원 현장/소장 이백래) 직원들의 정성으로 예쁜 액자에 담겨 공사현장 울타리에 걸렸습니다. 유한빈 어린이의 '병실의 친구들에게' 라는 작품을 포함한 16점의 작품은 어린이들에 의해 직접 개시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백혈병 어린이와 어머니, 삼성물산 직원, 의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고, 작품의 주인공들에게는 레고조립품, 노래CD 등이 선물로 선사되었습니다. 차가운 느낌을 주던 공사현장의 울타리는 어린이 그림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병원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신선한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사랑모음터

(새로 가입하신 후원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10/3일까지)

9월

김은지 김현교 오경희 박지완 이임성 유왕근 유호빈 유호신
김 우

10월

안미숙 곽재석 김동순

사랑의 헌혈증서

안춘희 (14) 정은실(1) 김진숙(3) 홍인식(5) 윤효준(1)
샘솟는 집 방문자(3)

알립니다....

첫째, 날씨가 차갑습니다. 추운 겨울을 걱정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회보의 '선한이웃', '더불어사는삶', '작은이야기'에서는 후원자님의 잔잔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둘째, 헌혈증서의 수요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사랑의 헌혈증서 모음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편을 이용하여 후원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혈증서는 많은 수혈을 필요로 하는 백혈병어린이들에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셋째, 주소변경은 전화, 팩스, 지로용지 뒷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후원회 가입 및 자료신청은 후원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행인/이순형 편집인/안종남 발행처/백혈병어린이후원회(사회단체등록 서울특별시의회약 제208호) 110-46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14-3번지 전화 : 766-7671,2 팩스 : 766-7674
제일생명의 집(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옆 766-7671) 샘솟는 집(경기도 연천 0355-34-9981)
예금구좌 : 310-03-002396(조흥은행) 012989-0019486(우체국) 7607451(은행지로)
예금주 : 백혈병어린이후원회